



09

쓰레기 처리시설까지
볼거리로 만드는 센스**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 클린하우스 구축**

그림처럼 떠 있는 흰 구름과 에메랄드 빛 바다 배경이 인상적인 한 이온음료의 광고. 저지 저 해변은 분명 지중해 어딘가에 숨겨진 천연의 절경이겠지? 아니다. 광고의 배경이 된 곳은 대한민국 제주도. 제주에 처음 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지는 감탄의 한 마디.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여기가 우리나라인 것이 더 자랑스러운 곳, 바로 제주도다. 청정이온음료의 광고 배경이 될 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며 세계 속의 제주가 되어가고 있다. 타고난 지질적 경관과 개성넘치는 생활관습 그리고 풍부한 먹거리까지, 제주도의 매력은 끝이 없다. 제주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제주도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세계인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에 걸맞게 제주도는 오래 전부터 천혜의 경관을 잘 보호하는 것은 물론 깨끗한 제주를 위해 노력해 왔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기에 365일 손님맞이하는 심정으로 늘 주변을 청소하고 관리했다. 행정의 각오부터 남달랐다. 다른 도와는 다르게 이름부터 ‘청정환경국’이라 칭했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청정 제주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쓰레기 처리만 해도 가장 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곳이 제주도.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 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 클린하우스(CLEAN HOUSE)를 구축했다. 청정 제주를 표방하기에 나올 수 있었던 실천의 아이디어가 이 클린하우스에 함축되어 있다. “미국에는 화이트하우스가 있고 서울에는 블루하우스가 있으며 제주도엔 클린하우스가 있다(제주시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담당 강경엽 씨의 소개 멘트 중)” 제주도의 새로운 자랑이 된 클린하우스를 방문해 보자.



하루 종일 쓰레기 민원에 시달리던 그 때

때는 1995년,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종량제가 제주도 전체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얀 종량제 봉투는 마른 쓰레기, 젖은 쓰레기 구분 없이 꾸역꾸역 온갖 쓰레기를 터지기 직전까지 담아내야 했다. 가스로 입막음을 한 쓰레기봉투는 집 앞 어딘가에 무시로 던져져서 다음 날 아침 청소차량의 수거를 기다렸다. 누군가 전봇대 밑에다 쓰레기봉투를 놓으면 그 다음 사람도 당연한 듯 그 곳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았다. 쓰레기봉투를 내 놓는 날을 정해놓았지만 집안에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게 싫은 사람들은 날짜를 지키지 않고 몰래 쓰레기를 내 놓았다.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봉투는 내 놓을 때와는 달리 안에 있던 온갖 내용물이 주변에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개와 고양이의 쓰레기봉투 습격이 밤낮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쓰레기봉투가 놓인 곳은 그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냄새가 풍이지 않고 파리도 들끓었다. 당시 환경과에 근무하던 제주도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오문언 씨는

아침에 출근하면 처음 받는 전화가 쓰레기 민원이었다.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집 앞이 쓰레기장이 됐다”, “쓰레기 냄새가 진동한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안 지나갔다”, “공무원들은 쓰레기 안 치우고 뭐하는 것이냐?” 쓰레기 민원은 퇴근시간까지 이어졌다. 하루 일이 쓰레기 민원 전화로 시작해서 쓰레기 민원 전화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한다.

수거차량을 타고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다 미화원이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도로에 생긴 방지턱으로 인한 낙마사고였다. 깨진 병과 철 등으로 인해 손을 다치는 것은 예사였다. 청소차가 골목 안쪽까지 못 들어갈 때는 쓰레기봉투를 들고 날라야 했다. 매일 아침 수거 차량이 지나가도 오후가 되면 다시 쓰레기가 넘쳐났고 쓰레기 민원의 벨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쓰레기 관리를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종량제를 넘어선 새로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발상의 전환으로 쓰레기 고민 타파!

제주시 환경관리과 김양보 과장(현 제주특별자치도 WCC총괄기획팀장)은 미국인 친구와 제주시를 걷고 있었다. 시간은 밤 10시경. 관광지인지라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상가들이 많았다. 그런데 전봇대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봉투를 열심히 뜯고 있는 모습이 둘의 시야에 포착됐다. 냄새가 풍겨져 나왔고 밤이라 더욱 더러워보였다. “너희 제주도가 관광도시인데 저런 모습은 좀 아니지 않은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제주도가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못해 도시미관을 망치고 있다니! 창피한 일이었다. 김양보 과장은 인건비 등 재정적 부담과 쓰레기 민원에 대한 사항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터였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WCC총괄기획팀장

다. 효율적이면서도 깨끗한 쓰레기 처리 방법이 없을까.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구분, 그 이상의 발전된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발상의 전환은 고민하는 자에게 선물처럼 다가왔다.

“행정이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한 지점에 가져다 놓으면 수거해 간다.” 문전수거를 거점수거로 바꾸자는 생각이었다. 주거지역 내에 일정한 시설을 마련해서 시민이 한 곳으로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수거차량은 일일이 집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필요없이 한 지점에서 수거를 끝낸다.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수거용기에 담기만 하면 된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 ‘클린하우스(CLEAN HOUSE)’의 시작이었다. 클린하우스는 김양보 과장의 아이디어와 쓰레기 민원의 해결을 누구보다 바랬던 제주시 공무원들의 협업이었다.

주거 및 상가시설 전후좌우 100m의 간격을 두고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비가림 시설 아래 CCTV와 악취 저감대, 전기시설(오디오 멘트 포함)이 함께 들어가 있다. 수거용기까지 일체형으로 클린하우스 한 개당 약 1500만원이 소요된다. 수거차량은 자동 상·하차식 차량으로 편리하게 수거하도록 만들었다. 동지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40개소(비가림 730개, 거치대 310개 설치, 좁은 지역에는 비가림 시설 없이 거치대를 두었다.)를 설치하였으며 총 10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읍면지역은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320개소, 48억 원의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클린하우스 효과

클린하우스가 들어서면서 집 앞마다 쓰레기봉투가 널브러져 있었던 전과는 달리 도시미관이 말끔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이 물

| 총 사업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설 치 수 량			사 업 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1,460	1,050	410	21,615 (6,001)	15,325 (4,114)	6,290 (1,887)
2006년	124	124	—	1,614	1,614	—
2007년	152	134	18	2,033 (610)	1,737 (521)	296 (89)
2008년	370	326	44	5,633 (1,690)	4,879 (1,464)	754 (226)
2009년	194	146	48	3,045 (914)	2,295 (689)	750 (225)
2010년	250	120	130	3,740 (1,122)	1,800 (540)	1,940 (582)
2011년	200	100	100	3,000 (900)	1,500 (450)	1,500 (450)
2012년	170	100	70	2,550 (765)	1,500 (450)	1,050 (315)



(위) 인력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모습
(아래) 청소차량으로 간편하게 수거하는 모습

려와도 쓰레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일은 없어진 것이다. 오히려 동네마다 개성있는 클린하우스 시설로 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되었다. 한 동네는 등나무가 클린하우스 지붕을 타고 올라가 멋진 경관을 만들기도 했으며 클린하우스 벽에 관광명소 사진을 붙여 특색을 살리기도 했다. 동네마다 클린하우스가 있으니 클린하우스 번호로 약속장소를 쉽게 찾는 효과까지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수거차량이 줄어들면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톡톡히 봤다. 수거인력이 108명에서 56명으로 줄었으며 차량이 36대이던 것이 28대로 줄었다. 연간 인건비 2,132백만 원, 차량유지비 144백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이다. 쓰레기봉투가 사라지니 쓰레기를 뒤지던 동물들도 눈에 띄게 사라졌다. 쓰레기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고

클린하우스 설치 전후 사진





클린하우스



양이를 제주도에서는 이제 볼 수 없다. 일일이 쓰레기를 나르지 않아도 되니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되었다. 자동 상·하차식 수거처리로 인사고도 줄었다. 클린하우스의 구축은 그야말로 청소 시스템의 ‘개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클린하우스의 초기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쓰레기를 직접 날라야 한다니, 왜 공무원들이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왜 하필 우리 집 앞에 냄새나는 시설을 설치하느냐”, “길도 좁은데 클린하우스까지 있으면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 등의 불만 섞인 항의가 쏟아졌다. 그리고 클린하우스의 설치에는 찬성하면서도 내집 앞 설치에 결사반대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제주시는 종량제 봉투의 한계와 클린하우스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주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을 설득해 나갔다. 관광 제주, 청정 제주를 위한 클린하우스의 순기능을 먼저 인식한 한 목사님은 신도들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대 주

민 홍보가 이어지면서 내집 앞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을 제외하고는 불만은 금방 수그러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달라진 도시경관을 시민들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늘 들락날락 해야 하는 슈퍼나 관공서 가듯이 클린하우스에 들리면 그만이었다. 시민들은 클린하우스까지 쓰레기를 들고 가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라 시민의 의무임을 금방 체득하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의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추진하고 있던 절물휴양림 아랫마을은 오히려 클린하우스를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되가져가다가 마을 앞 계곡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 클린하우스가 생기니 관광객들도 클린하우스에만 쓰레기를 모으게 되었던 것이다. 관광객들의 의식까지 자연스럽게 바뀌게 만든 경유다. 현재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93%에 이른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

청소시스템의 혁신적 개선이라는 과업을 달성한 클린하우스는 세계적인 명소로 나아가는 제주의 위상에 맞게 꾸준히 개선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단순히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사용후기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층이 많은 읍면지역에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수거용기에 글씨 대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붙여 노인들이 쓰레기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캔이나 병을 버릴 때 수거용기의 통이 깊어 소음이 발생하거나 병이 깨진다는 의견이 있어 새로이 중간투입구를 만들었다. 수거용기 상단의 큰 덮개도 무거워서 들기 힘들고 쾅 닫히는 소리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덮개가 서서히 닫히는 것으





제주시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담당 강경엽 ·
제주도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오문언

동해시 방문



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클린하우스가 언제나 클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을 세척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통에는 미생물을 투입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있다. 청소인력이 쉬는 주말에 클린하우스가 방치되어 더러워진다는 민원이 있어 최근에는 주말세척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클린하우스를 담당하게 된 제주시 생활환경과 강경엽 씨는 본인이 일을 맡게 된 이후로 클린하우스 민원전화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만큼 클린하우스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현재 클린하우스의 인기는 제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클린하우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견학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 부산시 등 62개 기관 2,600여명이 클린하우스를 배우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각 도에 실정에 맞도록 클린하우스가 재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14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다. 비가림시설과 수거용기의 디자인은 달라도 “클린하우스는 메이드 인 제주”라는 사실에 담당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2006년에는 클린하우스의 혁신적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행정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새로운 볼거리, 자랑거리가 된 클린하우스! 국내 관광객들이 와도, 해외 관광객들이 와도 자랑스럽게 선보일 수 있는 최고의 청소 시스템 클린하우스가 있기에 제주도는 더 힘껏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섬이 되기를 두 손 모아 응원한다.
